

# 한우가격 급락...전남도, 안정대책 추진

전국 최초 사료구매 자금 지원  
농축협 할인 등 소비촉진 주력  
브랜드 육성·동남아 수출 확대

초로 한우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과 소비촉진 등에 나선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한우가격 하락 원인이 사육 두수와 수입육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전남도는 한우고기 가격하락 원인으로 ▲2015년 이후 사육 지속 증가(18만

마리 증가) ▲도축 수 증가·쇠고기 10만 무관세 수입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소비위축 등을 꼽았다.

이에 한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사료 구매자금 1% 이자 지원(24억원), 증체율 향상 지원(14억원) 등 신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 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남도장터·대형 유통업체, 지역 농축협 할인판매(10~40%), 대형 급식업체 쇠고기 소비 협조 요청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우 사육 수 조절을 위해 저능력우 등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 감축과 정부·농협의 감축사업 참여 유도도 적극 추진한다.

전남도한우 브랜드 육성(28억원)

으로 한우 개량 가속화는 물론 홍콩 등 동남아시아 수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축협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우산업 지원 대책'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건의 내용은 ▲한우고기 제고물량 격리를 위해 저등급 한우 수매 ▲대형급식업체에 수입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대체 공급 시 차액 지원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 가격 안정자금 3조원 조성 ▲배합 사료 가격 인상액의 50% 지원 등이다.

또 ▲2023년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 무이자 지원(1.8%→0%) ▲수입 쇠고기 무관세 철폐선언 ▲한우고기 군 급식(1만마리) ▲도소매 가격 연동제 시행 ▲정부 차원의 동남아시아 등 수출국 다변화·수출 물량 확대 등도 포함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한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와 온라인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장 격리, 배합사료 기금 조성, 수출 확대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단속

4월까지 149곳 대상

광주시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9일부터 4월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겨울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149개소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세륜·살수

설, 방진벽 등)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미가동 등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켜 시민의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 중 벌칙 사항은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 이개호,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민복상'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이 지난 6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2022년 국정감사 국민복상'을 수상했다.

2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 방



지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를 화두로 ▲심각한 문화기반 시설 수도권 편중 해소를 통한 지방소멸방지책 마련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 촉구 ▲노후화율은 높은 지방공공 체육시설 지원 확대 ▲전통사찰 개

보수 자부담 비용 축소 ▲마한사 지원 확대를 통한 우리 고대사 바로잡기 필요성 등 다방면에 걸쳐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시민여러분들이 평가를 통해 선정해 주신 상이 영광스럽고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오전 가뭄에 따른 섬 지역 상수도 공급대책 점검을 위해 완도군 금일읍 척치제를 방문, 강성운 완도부군수로부터 비상급수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가뭄 항구대책 광역상수도 신속 추진"

김 지사, 장기가뭄 완도 점검  
물절약 생활화 등 절수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장기가뭄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완도 금일읍 도서지역을 방문해 상수원 저수지를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완도 금일·노화·보길·소안·넙도 등 도서지역은 지난해 5월부터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

금일읍은 11월 7일부터 '2일급수+4일단수', 노화·보길은 11월 23일부터

'2일급수+4일단수', 소안은 11월 1일부터 '2일급수+5일단수' 넙도는 5월 16일부터 '1일급수+6일단수'를 시행 중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완도에 가뭄대책비 73억원(특별교부세 65억·예비비 8억)을 지원해 급수차 운영, 해수담수화 시설, 대형관정 개발 등 가뭄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지난달 27일 민생대책으로 섬 10곳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고, 절수기기 보급을 위해 7억원을 지원해 물 절약 생활화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완도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 대형 관정 개발 등이 2-3월까지 조기 준공되면 현재 물 사용량 이상으로 공급이 가능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구대책인 노화·보길, 약산·금일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민들께서는 가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견디면서 절수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근산 기자

## 도, 민원담당자 안전 '최우선'

민원인 폭언·폭행 증가세  
직원 보호시설·홍보 강화

전남도가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업무담당 직원의 안전을 지켜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사업을 구체화해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개정과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도 또한 '전남도 민원 처리 담당

자 보호·지원 조례'가 지난해 10월 제정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도는 민원담당자 보호·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올바른 민원문화 홍보에 나선다. 공직자 치유 지원을 위한 조치로 의료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힐링교육, 휴식 시간·공간 제공 등도 추진한다.

민원업무 처리 담당자 사전 보호를 위해 민원에티켓 실천 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을 비롯, 전남도 대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CCTV, 비상벨, 녹음기 등 안전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또 비

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해 반기별 모의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는 웨어러블 카메라(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를 새로 구비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 담당자가 더욱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원인의 다양한 위법행위로부터 공직자의 신체적·정신적 치유 지원도 추진하며,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진료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힐링교육, 휴식 시간·공간 제공 등도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8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공익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를 배려하는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신정훈 "화순 축산악취 개선 국비 3억여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사진)은 8일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사업'에 화순군이 추가 선정돼 3억1,500만원의 국비, 7억9,750만원의 용자 등 총 11억25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은 양돈 분뇨 정화시설, 바이오가스,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분뇨를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사업이다. 환경오염 방지,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축산농가 주변 주거환경 개선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는 화순을 비롯해 전국 30개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화순의 경우 그동안 축산 악취 민원이

연평균 80여건에 달할 정도로 인근 거주 주민의 고통이 컸었는데, 이번 국비 확보로 분뇨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오랜 기간 축산 악취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게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이 재쟁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화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www.hdamis.com

###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기업

### 현대아미스는 오늘도 정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

경비운영

청소·미화

소독·방역

**현대아미스그룹**

현대아미스(주)	아미스(주)	(주)한솔티엘에스
한솔엘리베이터(주)	(주)아미스능력개발원	(주)도곡전기엔지니어링
(주)아미스개발	메인기획협동조합	복지TV호남방송

광주 서구 상무대로 673번길 8 (마륵동 173-8번지)  
T.062)225-1050 FAX.062)463-7300

**회장 김우열**